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금시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4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1(통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 순례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살이로 분주해진 우리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봄의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무겁고 두꺼운 겨울 외투를 벗어내듯,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햇살을 맞으며 거짓과 위선의 허울을 벗어내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신보다 약하고 어린 생명을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는 이 사회의 풍조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의 권리를 빼앗는 일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끝도 없이 솟구치는 소유욕을 버리게 하시고,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꿈꾸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렘31:33 인도자

♠ 교 독 문 127. 사순절(4)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박소진 선생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93(통447). 오 신실하신 주 다함께

성경봉독 I. 막14:3-9 전수정 학생

..... II. 약1:12-18 정원석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그 사랑을 엿보다 손성현전도사

..... II. 본말전도(本末顛倒)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양 436(통493).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삶이 힘들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뿌리를 살피며 사십시오.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을 품고 사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만을 탓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제 자신에 있었습니다. 부질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제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며 살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동교회	빌립보서 공부
	기도: 정영선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장성호 선생	김제우 학생
	김기석 목사	한상익 장로	안홍숙 권사

3월	영접위원	김인걸 하정석 김대근 이명희 문영혜 오자영
	헌금위원	윤석철 박성실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문화 금식

감당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로 다가오는 누군가와의 운명적 만남이 있듯, 어느 책과의 만남도 그러할 때가 있다. 나에게서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가 그러한 것 같다. 도시생활이 주는 소비적 삶과 그 생활이 주는 편리함을 포기하고 홀연히 버몬트 시골로 들어간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부부. 조화로운 삶을 살고자, 스스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식을 거두어들이면 나머지 시간들은 TV가 아닌 독서와 글쓰기, 음악, 토론 등으로 삶의 성숙을 일구었고, 늘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를 지향했으며, 자연과 함께 교감하며 살려 했던 두 사람. 무엇보다 평화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로, 또한 농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스스로 곡기를 끊음으로써 그가 이르고자 한 조화로운 삶을 장엄하게 마무리한 남편 스콧 니어링의 삶과 죽음은 아직도 먹먹한 울림과 감동으로 남아있다.

사실, 그들의 삶은 문명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시각에서 본다면 매우 급진적이고 반문화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비인간적 산업주의 체제와 그 문화의 야만성에 도전하고 참된 대안적 삶의 형태로서 ‘땅에 뿌리 박은 조화로운 삶의 문화’를 일구려 했던 그들의 삶이야말로 진정 문화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반문하게 된다. 그들의 도전적인 삶의 기록 앞에, 문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묻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예수 따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처럼 세상의 넓은 길에서 탈주하여 하나님 나라의 존재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세계의 물질주의적이고 자폐적인 존재방식을 뛰어넘어 참된 자기성찰의 길로, 조화로운 삶의 길로 참된 돌봄의 길로, 함께 있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아닐까.

그러한 깨달음은 결국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을 ‘예수 따름’의 온전한 의미를 다시 배워가는 레슨의 시간으로 삼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자기포기와 자발적 고난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또한 참된 회개와 내려놓음,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심코 편리함과 안일함에 젖어있던 우리들의 물질주의적 생활 습성을 되돌아보고, 자발적 절제를 통해 우리의 생활세계에 고착되어 있던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감행해 보는 일, 그리하여 세상의 길과 삶의 방식이 아닌 복음의 정신을 담고 있는 대안적 길과 방식을 조금이나마 실천해 보고자 하는 일, 포기과 절제를 통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이른바 ‘문화금식’을 통해 우리는 더욱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이 문화금식은 매우 단순하고 소박한 일에서 시작된다. 늘 꽂혀 있던 TV 플러그를 뽑아내고 그 시간을 좀더 창의적인 일로 채워보는 일, 제2의 고향인 대형마트와 결별하고 번거롭더라도 동네시장에 발걸음해보는 일, 인스턴트 음식들을 절식하고 슬로푸드를 섭생해보는 일,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봄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일 등, 불편함에도 당연하게 여겨온 생활의 습속들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이 자발적인 문화금식을 통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문화적 삶을 성숙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대안적 문화를 확산코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문화 전통이 성숙하게 뿌리내린 독일에선 이미 ‘지벤 보헤 오네(Sieben Woche Ohne = Seven Weeks Without)’라 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생활 습관들을 절제해보는 7주간의 절제운동이 실천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무려 천만 명에 이르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간 동안 TV시청이나 인터넷 이용을 줄이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끊어보고,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없이’사는 법을 익히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하여 공동체와 ‘더불어’하는 연대정신을 실천해보고자 이 절제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화선교적 과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기도회, 금식, 교회 안의 행사로만 채워지던 사순절기의 모습들. 하지만 그나마도 점점 왜소해지고 있는 사순절의 정신이 진정 제 빛을 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생활과 문화 속에 ‘사순정신’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자발적 절제와 포기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고 새로운 삶의 습관과 문화적 지형들을 만들어가는 일, 응당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일지라도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점점 공감되고 확산될 때, 사순절 이후 모두가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듯, 우리의 세계는 새로운 문화의 시작을 경축하게 될 것이다.

- 백광훈, 『오늘』 2010, 3-4월 호 중에서

생명의 나라

장일순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얘기했어요
남의 것을 힘 있으면 다 빼앗아 갖고
갖다가 별짓 다하고
남의 금덩이고 보석이고 있으면 덮어놓고 다 노략질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의 나라
꿈을래야 꿈을 수 없는 나라
나눌 수 없는 나라
그러나 그것이 전체를 절대 절명으로 지배하는 나라
그 위대하심이 길가에 피는 작은 꽃 한송이에도 있는 나라
그걸 얘기했어요
참 엄청난 말이죠
그걸 거룩한 사람들
사심이 없던 사람들
욕심이 없던 사람들은 일찍 알아들었지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재흥 최희영 조병무 송양진 김경연 김신욱 김순복 전영웅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숙화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문복순 최현선
 박영희 배상순 권호진 백묘현 손성현 안정숙 서원금 안종일 정현주
 윤수진 이예정 이한림 김명희 홍순구 안홍숙 김성한 조영순 이재문
 송의섭 정재정 전세종 김정민 김종락 박영신 이우원 옥귀희 이어진

월정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영순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이갑재
 이정은 장재영 김재영 전영규 김경수 전영자 조순덕 정현숙 최윤희
 박상규 신연화 이종현 백성래 김수진 송동준 김진경 박은정 김용태
 박정숙 무명

감사헌금:

곽새롬 박홍재 문홍일 김성한 조영순 최종훈 김금하 신진식 김인걸
 문영혜 전세종 김정민 김승식 박상희 오정숙 전성오 송동준 김진경
 김아영 한훈식 무명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희우 문복순 최경미 장원호 박성희 송희원 채원 우석
 이성운 하현철 최성애

생일헌금: 정완수 김필순 김순복 조항미 김현영 전 용

숙명	인도자	숙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장혜숙	김정선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서정순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이소순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신영신	문영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조병주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송의섭
시온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김재광	이기분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강순배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박찬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교회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유경순	박옥식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방극숙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최영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사순절** : 사순절 넷째 주를 지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좀더 깊이 묵상하며 지내십시오.
2. **동호회**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입니다. 생태동호회는 평택으로 감자를 심으러 갑니다.
3. **부장회의** :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늘 오후 1시 <사무실2>에서 있습니다.
4. **세례입교교육** : 오늘(14일)과 다음 주일(21일) 오후 3시부터 <사무실2>에서 세례 입교교육이 실시됩니다.
5. **공동기도회** : 생명의 강을 위한 4대 종단 공동기도회가 15일(월) 오후 2시 상주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 서초구민회관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6. **예수포럼** : 한국기독교연구소가 주관하는 예수포럼 3월 모임이 15일(월) 저녁 7시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방송인 서유석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7. **바자회 결과** : 청년부가 주관한 아이티 돕기를 위한 바자회에서 558,61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성금은 월드비전을 통해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8. **신앙실천** : 사순절 순례에 도움이 될 만한 ‘문화금식’ 을 한 가지 정해 지켜나가십시오. (주보 ‘믿음으로 읽는 글’ 참조)
 - * 식당 봉사 : 베들레헴 속 (다음 주 : 안디옥 속)
 - * 설거지 봉사 : 손성윤 고미진 정희은 (다음 주 : 정희은 김주일 권혁신)
 - * 새교우 : 박아름(청년)

예배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